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	보 도 자 료		자원순환사회 시멘트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발표일시	2021. 2. 26(금) / 총2매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
담당 부서	홍보협력팀	담 당 자	· 한찬수 부장(홍보협력팀장) · ☎ (02)538-8237/HP(010)3759-7108 E-Mail speedfire@cement.or.kr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달성에 정부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필요

- 탄소중립 추진방향·애로사항 논의 환경정책 간담회서 의견 전달 -
-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및 R&D시설투자에 과감한 지원확대 주문 -

국내 시멘트업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선결과제로 정부의 관련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R&D, 시설투자 등 결과물이 미래 수요처와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 現 쌍용양회 대표)는 26일(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산업계 CEO 초청 환경정책 간담회에 참여하여 시멘트업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10개 업종 14명의 CEO가 참석해 중요 현안인 탄소중립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시멘트업계는 이현준 협회장과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이사가 시멘트업계를 대표해 참여했으며 시멘트업계가 처한 상황을 환경부에 적극 개진하였다.

이현준 회장은 “시멘트업종은 주요 원료인 석회석이 시멘트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공정배출)이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석회석을 대체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우며 원료 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대책의 핵심은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시멘트 생산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과잉규제와 온실가스 감축투자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연성 폐기물(순환자원)의 규제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CCUS와 수소연료 등 혁신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파일럿 수준의 실증연구가 완료된 상황으로 스케일업(scale up)을 통한 CO₂ 전환제품 생산으로 일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R&D 및 시설투자에 과감한 지원책과 결과물인 CO₂ 전환제품이 미래 수요처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주대 김진만 교수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과제」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대표기업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